

추천사 “보랏빛희망”

박에스더

아름다운동행 발행인

시애틀에서 홈리스들의 대모로 불리는 김진숙 목사님과의 만남은, 모든 만남이 그렇지만 참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2015년 1월 캘리포니아 토런스 빈 목사님은 그야말로 ‘보랏빛 여성’이었습니다. 백발의 단정한 머리, 자그마한 체구의 단아한 표정, 무엇보다 티셔츠에서 소지품까지 온통 ‘보랏빛’ 일색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웬지 그런 외모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풍겨났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홈리스들을 보듬어 오면서 천신만고의 시간을 살아내신 목사님이 훈장처럼 얻게 된 넓고 깊은 가슴의 온기였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오히려 육체적·영적·정신적 빈곤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홈리스들을 치유하는 데 목사님의 이 따뜻한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보랏빛’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빨려들었습니다. 아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흥분하다 보면 깊은 공감에 이르렀고,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밤이 깊어 가는지 새벽이 밝아오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의 인터뷰는 밤을 하얗게 새우고도 모자라 이튿날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 인생의 신비로움과 또 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우연한 첫 만남 덕분에 저는 김진숙 목사님의 홈리스 사역 이야기를 기록한 책 <보랏빛 희망>을 세상에 내놓는 데 산과의 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이토록 보배로운 이야기를 엮어내는 복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제가 그날 밤에 누린 감동과 충격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오히려 설레기까지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함흥에서 태어나 열 살 때 공산당을 피해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몇날 며칠을 걸어 월남한 이야기에서, 전쟁과 피난의 아픔, 가난과의 싸움, 남존여비의 사회적 구습을 극복해낸 이야기, 이화여고를 거쳐 한신대 입학에 이르기까지의 특별한 학업 여정, 미국 유학과 결혼, 큰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삶의 전환,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삶을 기반으로 홈리스 사역에 뛰어들어 헌신하고 순종해 온 이야기들까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나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홈리스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불꽃을 피우듯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마는 모습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듯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곧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이듯 홈리스들과 함께 ‘보랏빛 여성’으로 살아온 목사님의 삶은 언제나 ‘사순절’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풍요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미국의 모든 도시들마다 가난한 홈리스가 존재한다는 역설적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홈리스 사역에 나서야 하고,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적 이해와 당신의 삶을 통해 겪은 경험들으로써 대답해줍니다.

홈리스 사역을 시작한 뒤 50 여 년 동안 그의 관심은 오직 '홈리스근절'이었고, 이를 위해 사랑의 심장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세우며,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방황하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 변함없는 삶을 통해 홈리스들의 엄마와 언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식 같고, 형제 같고, 친구 같은 목사님에게 애정과 친근감을 담아 부르는 호칭 'Jean'에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홈리스들의 가족, 곧 새로운 홈인 셈입니다.

목사님은 회갑잔치도 그들과 함께, 팔순잔치도 그들을 위한 잔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생을 보내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일까지도 그들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목사님의 삶이 홈리스 사역의 방향이 됨은 물론 그 내용을 채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진숙 목사님의 이 기념비적 자서전 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천사 “보라빛희망” 이유신목사

보라빛 셔츠를 입은 '보라빛 여성,' 김진숙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제 34 차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 전국총회 (2005 년)에서 였습니다. 집회 설교자 (제목: '우리 도시에 살롬을')로, 그리고 워크숍 리더(제목: '기아와 무숙자 사역')로 오셔서 교회 자체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한인 이민 교회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지역사회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셨습니다. 곧, 그의 설교는 우리가 그동안 이웃에 있는 주린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일에 크게 부족하였음을 회개하게 하고, 홈리스 사역에 눈을 뜨게 하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보라빛 희망'은 그저 한 인간의 고통스러웠던 삶과 교훈을 담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만세 전에 그를 택하시고,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 죽게 하시고, 타버린 재에서 부활과 소망의 씨앗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본 서의 저자 김진숙 목사님은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 속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지난 세대의 어머니들과 여성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픔의 눈물을 흘렸고, 자식을 잃고 애꿎게 우는 어미로서의 처절한 눈물을 밥으로 삼았고, 마지막 40 년은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홈리스들을 살리기 위하여, 비내리고 바람부는 시애틀의 거리를 누비고, 미국

전역을 누비며 눈물로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눈물의 여인이었다는 점이 그 무엇보다도 뜨거운 감동으로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을 다시 만나면, 아무 말없이 그저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싶어집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 때를 따라 용기를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위로와 기쁨의 눈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집이 없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수 많은 영적 홈리스들에 대한 애통과 간구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도록 감동을 준 김 목사님의 자서전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배우고, 자신을 훈련하여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그 끈기와 열정, 육신은 그의 말대로 종합병원처럼 온갖 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어진 일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고 마는 불굴의 정신력, 하나님의 등에 업혀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고백으로 마무리짓는 김진숙 목사님의 자서전, '보라빛 희망'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며, 전국에 세워지기 시작한 홈리스 교회들과 이제 시작된 홈리스 교육재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유신 목사
University of California - Davis 명예은퇴교수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은퇴 사무총장
2017

추천사

“보라빛희망”

정득실목사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목사님께서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목회부 순회사역할 때인 1998 년이었다. 오하이오주의 우리지역에 오셔서 민박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민박을 초청하신 분이 일이 생겨 급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댁에 모시게 되었다.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오신 목사님을 만난지 19 년, 그후 등지선교회(Nest Mission)를 세워 함께 섬겨온지 11 년, 그 긴 세월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사역하며 겪어 온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의 추천사를 대신 하고자 한다.

지난 27 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해왔지만, 김진숙 목사님만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목사님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매력이 있다. 한번 만나보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100 곳이 넘는 민박 가능한 지인들이 계시는 것으로 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자기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시다. 지인들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시간관리, 건강관리, 재무관리, 설교 및 사역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매일 일정표를 들고 연필로 메모하신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에 남겨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시며 관계를 유지하신다. 이처럼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목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럽다. 매번 설교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전달하는 수고를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후원금을 보내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편지나 메모를 보내신다. 홈리스근절을 위한 방언어주기 운동을 위해서 미국기관과 이메일로 주고 받는 업무, 홈리스 지도자 양성 수련회 프로그램, 후원의 밤 행사나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홈리스들에게 3일 동안 모텔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성탄절 행사 등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이시지 않으신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다. 또한 평생을 천식으로 고생하시고 수많은 수술로 인해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시고 날마다 걷는 일을 쉬지 않으시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신다. 또 돈에 관한 한 청렴결백하신 분이시다. 홈리스 사역을 하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많은 돈들이 오고 간다. 모든 재정에 대한 계산은 단 일전도 틀리지 않는다. 심지어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사례비를 받아도, 사람들이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주셔도, 또 자녀분들이 생신이나 기념일에 돈을 드려도 모두 선교회로 돌리신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받으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또한 동지 선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급료를 받으신 적이 없다. 모두 자원봉사로 일하고 계신다. 홈리스 교육을 위한 김진숙 교육재단도 팔순 생신 및 영상출판 기념식에 들어 온 기금 전액을 내어 놓으셔서 세워졌다.

목사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시다. 본서에서 목사님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 놓으신다. 시기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한국전쟁과 이민생활로 이어지는, 지역적으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지난 80년의 삶의 애환과 질고를 남김없이 들려주신다. 그 험한 삶의 여정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 땅의 가장 어렵고 가엾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신다.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울고 웃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 목사님이 걸어 오신 그 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힘겨웠던 삶을 나누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본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사님은 철저히 준비된 사역자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의 몸으로 가장 험하다고 하는 홈리스 사역에 반세기를 헌신해 오신 것도 귀한데, 신학과 사회사업과 정신질환 분야를 모두 공부하시고 오랜 임상훈련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년 시행되는 연장교육을 통해 81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을 모두 유지하고 계신다. 워낙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시지만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사역의 현장을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다. 지금도 노구를 이끄시고 날마다 홈리스들을 만나러 나가신다. 단순히 나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 직업훈련과 초급대학 진학을 하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자원하는 홈리스들을 데리고 대학 담당자를 만나 상담, 진로 결정, 원서제출에서 연방정부 재정지원, 입학 및 학업진행, 낙오하지 않도록 과외지도, 끊임없는 격려와 물심양면의 각종 지원 등 쉽없이 홈리스들과 함께 걸으신다. 홈리스들에 대한 목사님의 애정과 열정을 누구라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앞에 머리가 수그러진다.

목사님은 항상 여성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남편이나 아이의 뒤에 가려진 그림자로 살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일을 찾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을

강조하신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과 차별을 두거나 선입견을 가지는 사회통념을 철저히 배제하신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다사다난 했던 인생여정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오신 목사님의 삶이 여성독자들에게 좋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목사님은 평소 '나를 등에 업어 나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신다. 여중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예수님의 매력에 푹빠져 평생을 사셨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나마 닳고 싶어서 오늘도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신다. 때론 너무 힘드셔서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탄식도 해보지만 금방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신다. 평생을 입고 다니시는 보랏빛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요 동시에 순종의 표현인 것이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목사님께서 평소 손주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글로 남겨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 역시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는게 안타까웠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발자취는 오는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이다. 그렇게 바라던 자서전이 나와 늘상 듣던 이야기들을 글로 읽으니 감회가 남다르고 이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동일한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17년 1월 6일

정득실목사

동지선교회(시애틀) 이사장,
북미주 한인 홈리스 선교협의회(KACH) 회장